

정보 TIP

자복하는 USB '아이언키' 시판

보안전문업체 닷큐어(대표 손청 www.dotcure.co.kr)는 누군가 USB를 훔쳐내 데이터 유출을 시도하면 자복하는 USB인 '아이언키'(사진)의 국내 시판에 들어갔다.

미국 보안USB인 '아이언키'는 USB에 독자적인 암호화칩을 내장, 데이터를 하드웨어적인 방법(AES 128비트)으로 감춘다. 이를 일일이 풀려면 이론적으로 149조년이 걸린다. 또 미리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가 10번 이상 틀리면 데이터를 로우레벨 수준으로 포맷한다. 해커가 USB를 분해하려고 시도만 해도 스스로 파괴된다.

종류는 1, 2, 4, 8GB 등 4종이다. 가격은 4GB 제품이 25만5천원.

이통3사 '문자 상품권' 출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선불카드 형태로 만들어 실물 상품으로 판매하는 '기프트문자'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프트문자'는 카드에 적힌 개인식별번호(PIN)를 유효 기간에 무선인터넷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카드에 제공되는 문자 건수만큼 무료로 SMS를 사용할 수 있는 선불 메시지 상품이다.

각 이동통신업체는 그동안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업체에 관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 TV 채널 일방 변경판 '보상'

앞으로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업체가 시청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 또는 요금 인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게임 계약을 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DVD플레이어, 노트북PC, 내비게이션 등은 구입 후 1년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 삼성네트웍스 '감' 서비스

SW깔면 휴대폰 요금 30% 줄인다

휴대전화에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통화하면 평균 20~30%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반면 이동통신업체는 이 상품이 '각종 위법의 소산'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도 못한 통신비 절감을 삼성네트웍스의 '감(gaam)'은 어떻게 한방에 30%를 낮춘 걸까. 출시 일주일만에 시장과 업계를 들쭉이게 한 '감'을 알아본다.



국내통화 10초당 14원 ... 출시 일주일만에 소비자 큰 호응

이통업계선 "사업권·통신망 없어 위법"... 통신위에 제소

◇통신비 절감 '감' 잡으세요

'감'을 이용하면 이동전화 국내통화 요금이 10초당 14원으로 기존 요금(SK텔레콤 10초당 20원)에 비해 30% 싸다. 미국, 중국 등지로 가는 주 국제전화도 1분당 87원으로 기존 요금(001 기준)보다 미국은 최고 69%, 중국 91% 저렴하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존 휴대전화 통화 방식에 비해 연결 시간이 2~3초 더 걸리며, 통화품질이 다소 떨어진다. 요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 통화 방식과 다른 우회 경로(080 수신자 부담)를 한번 더 거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금이 싼 080 지능망(KT·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사업자망을 이용한 별정통신)을 거쳐 통화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전화를 걸 때마다 복잡한 접속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것을 삼성네트웍스 '감'은 휴대전화에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접속번호를 자동으로 누르도록 만들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감' 홈페이지(www.gaaam.kr)나 무선인터넷(5430 + 네이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 설치하면 된다.

요금은 후불 결제 방식으로 매달 사용한 만큼 이동통신사의 요금고지에 합산 청구된다. SK텔레콤 가입자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F·LG텔레콤 가입자는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삼성네트웍스 신동경 텔레포니사업부장은 "감 서비스는 가계의 큰 부담으로 꼽히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 혜택과 감 서비스를 함께 활용시 비용

■ 감(感)서비스와 일반 휴대전화 요금 비교

구분	감 (삼성네트웍스)	T (SK텔레콤)	절감 효과
국내통화	10초당 14원	10초당 18~20원	22~30%
국제전화 (미국)	분당 87원	분당 282원 (001 이용시)	69%
국제전화 (중국)	분당 87원	분당 990원 (-)	91%
국제전화 (일본)	분당 275원	분당 696원 (-)	60%

gaam.kr)나 무선인터넷(5430 + 네이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 설치하면 된다.

요금은 후불 결제 방식으로 매달 사용한 만큼 이동통신사의 요금고지에 합산 청구된다. SK텔레콤 가입자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F·LG텔레콤 가입자는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삼성네트웍스 신동경 텔레포니사업부장은 "감 서비스는 가계의 큰 부담으로 꼽히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 혜택과 감 서비스를 함께 활용시 비용

절감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 서비스 이용자 유튜선 씨는 "처음에는 전화 걸 때 통화 버튼을 두 번 누르는 게 좀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쓰기 편하고 UI도 깔끔해서 좋다"며 "이번 달 휴대폰 고지서가 금금해진다"고 호평했다.

◇'위법'이나 '틈새'나

이동통신사들은 삼성네트웍스의 서비스가 통신법 상의 업무영역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유선, 이동, 시내, 국제 전화 등으로 구분해 기간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가로 출연금을 받는데 통신망이나 사업권 어느 하나 갖지 못한 삼성네트웍스가 이동전화와 국제전화 요금 상품을 내놓았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교환기 하나만 갖고 있는 사업자가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누가 수조원을 들여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정부에 출연금을 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권 침해'에 대해 제소할 상태이다.

반면 삼성네트웍스는 080 수신자부담이 정당한 별정통신 사업의 영역이라며 불법 의혹을 일축했으며 방송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삼성네트웍스의 관계자는 "접속료가 정당한가 문제는 사업자들의 문제이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이소연의 우주실험

ISS 소음감소대책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가 10일간의 우주임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귀환했다. 이 박사가 우주에서 펼친 18가지의 우주 과학 임무에 대해 그 실험이 갖는 의미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주제별로 실는다.

귀따가운 우주정거장 내부 소음 생기는 곳 '영상표시' 성공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활동 재개후 우주 과학 실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찾은 곳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이덕주 교수 실험실이다. 그곳에서 이 박사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수행한 우주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해 이 교수와 논의했다. ISS내 소음이 얼마나 심할까를 우주임무 중 하나로 삼은 걸까.

우주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무는 우주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소음이다.

겉보기에 ISS는 적막한 우주공간의 무중력 속을 유유히 떠다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우주인들의 생존에 필요한 수많은 생명유지 장치와 각종 과학실험 장치들이 움직이며 발생하는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한낮 시내 변화기의 교통소음 수치인 60~70dB로, 옆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때문에 우주인들은 잠을 잘 때 귀마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은 귀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 활동한다.



이 박사는 ISS에 머물던 지난 4월16일 이 같은 소음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탐색하는 실험을 했다. 이 박사는 이 교수와 국내 벤처기업인 SM엔스트루먼트가 공동 개발한 '폐쇄공간 소음원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 ISS 내 소음을 측정했다.

1kg 이하 초경량인 이 장비는 소리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음향스캔' 기술을 활용한 장치로서 적외선 카메라가 열이 발생하는 곳을 보여주듯 크고 작은 소리가 나는 곳을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낸다.

소음과 진동이 생기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이 지점을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해 그 위치를 영상으로 나타내고 그 지점에서의 소음의 크기도 지도의 등고선처럼 '소음 지도'로 나타내는데, 이 소음지도 작성은 러시아도 해보지 않은 첫 시도였다.

또 실험 장비는 소음측정 위치를 영상정보로 환원하는 측정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다수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지 않고 소음을 측정할 수 있어 실험 장비의 무게도 크게 줄었다.

러시아측 실험 모듈에서 이뤄진 이 실험이 우주환경 내 소음원에 대한 원인 규명은 물론 소음이 큰 우주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 개발 연구에도 활용된다.

아울러 우주인의 귀 건강을 보호하는 귀마개 개발하고, 이를 소음이 심한 산업환경 등에서 활용, 환경과 사람에 따라 보정이 가능한 일반용 귀마개 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개인정보유출 여파 스팸메일 역대 최고

1분기 전체 메일의 94.5% 달해 4년째 증가세... 소비자 피해 우려

최근 옥션 해킹과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스팸메일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내 대표적인 스팸차단 솔루션 '스팸스나이퍼'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업체 지란지교소프트가 자사 고객의 메일에 대해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팸메일이 전체

메일의 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메일은 0.1%였으며 정상메일은 5.4%에 불과했다.

특히 스팸메일이 94.5%에 달한 것은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3분기 92.8%에 비해 단 2분기만에 1.7% 포인트가 상승한 결과다.

또한 이는 2005년 전체 메일 중 스팸메일 비중이 86.8%, 2006년 90.57%, 2007년 92.63%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로, 4년째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출돼온 개인정보에 최근 옥션 해킹 사건까지 겹치면서 울타리 스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正統日食 미도

확장사업

일식이 뜨거워지면 13년후 일어날까? 새로운 문화의 조류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미도, 미도입니다. 미도내 확장사업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미도, 미도입니다.

정식/수입특선

- 독특한 맛의 4인용정식 세트 - 11,000원
- 매일정식 - 13,000원
- 미도정식 - 21,000원

수업료 50%기부 (무엇을 기부할지 선택)

문의: 234-0001

한국바다항우탕

바다의 맛을 담은 한국바다항우탕.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바닷물탕.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한국바다항우탕. 미도, 미도입니다.

바다의 맛을 담은 한국바다항우탕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바닷물탕.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한국바다항우탕. 미도, 미도입니다.

문의: 043-515-3339~40